

박물관 야외정원을 거닐어 보자

자작나무길

나무껍질에 물을 붙이면 자작
자작 소리를 내며
잘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해요.

이팝나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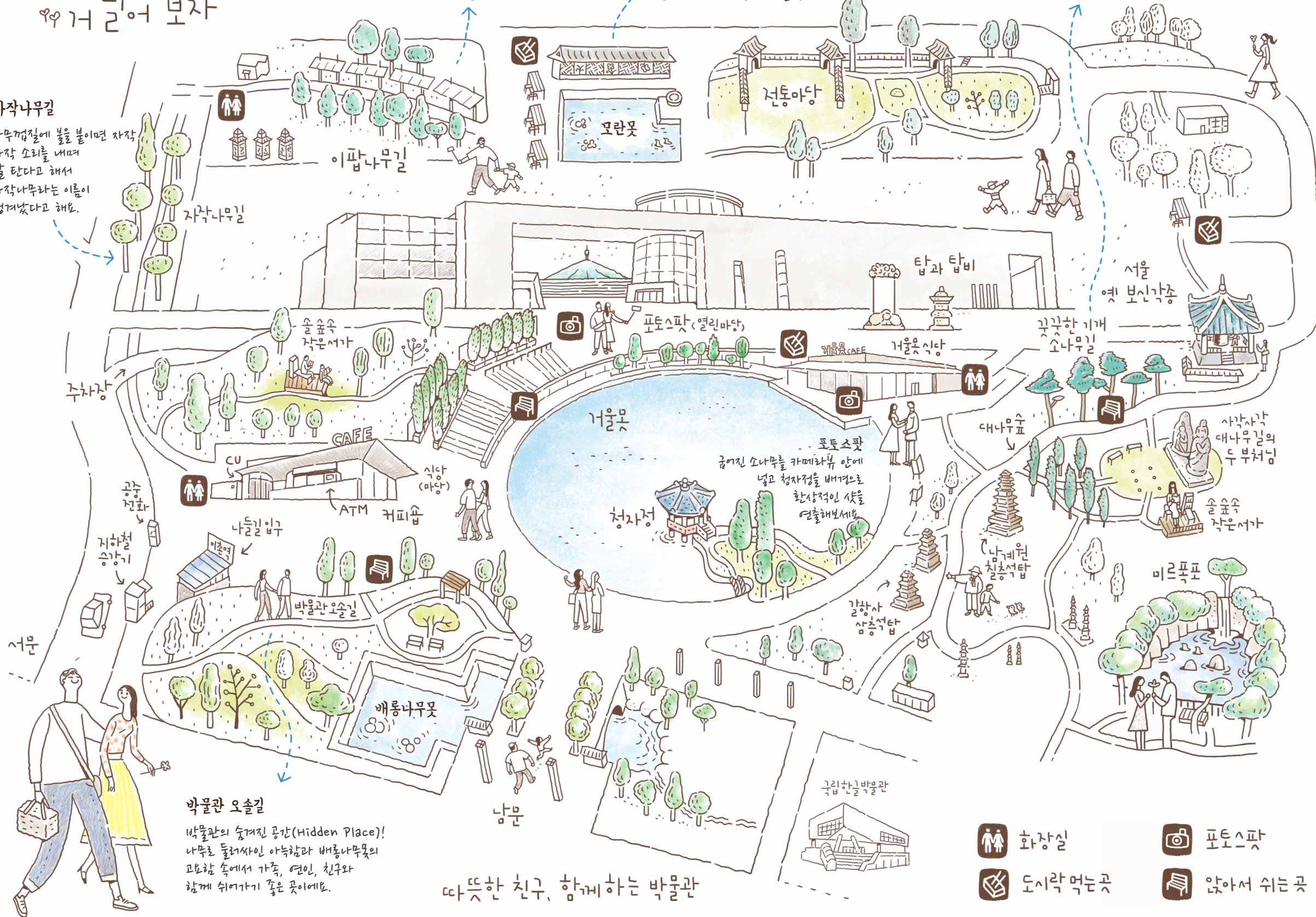
이팝으로도 불린 새싹밥과 모양이
달라 이팝나무라 불렸다고 해요.
4~5월이 절정!!

경복궁 돌담 & 모란못

경복궁의 돌담과 여러 문양을 재현하였으며 화단에는 소담하고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하답니다. 특히 3월의 매화, 4월의 모란,
5월의 작약이 만발한 때를 놓치지 마세요!

"꽃꽂한 기개, 소나무 길"

가슴을 펴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소나무의 곧은 기개가 온 몸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아요.



박물관 오솔길

박물관의 숨겨진 공간(Hidden Place)!
나무로 둘러싸인 아늑함과 배롱나무꽃의
고요함 속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쉬어가기 좋은 곳이에요.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물관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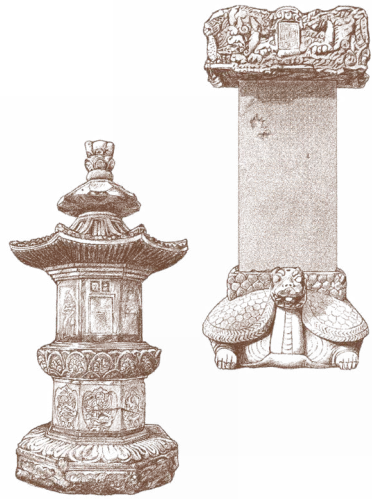
포토스팟



도시락 먹는곳



앉아서 쉬는곳



"승려의 탑과 탑비"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묘를 대개 승탑, 부도로 부르며 탑비는 승탑과 함께 세워져 승려의 일생과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남산 위 저 소나무~ 인생 포토 스팟"

여기서는 모두가 금손!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나만의 예술정신을 꽃피워보세요. 날씨 좋은 날에는 국립공원 북한산의 장대한 풍경까지 한 눈에 담아 갈 수 있습니다.

사각사각 대나무길의 두 부처님

대나무가 사각사각 거리는 속삭임을 들어보셨나요?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보세요. 두 부처님과 함께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솔숲 속 작은 서가

검고 푸른 대나무 길을 따라가면 솔숲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서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앉아 책장을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질 거예요.



미르폭포

(100% 청혼이 성공하는 전설의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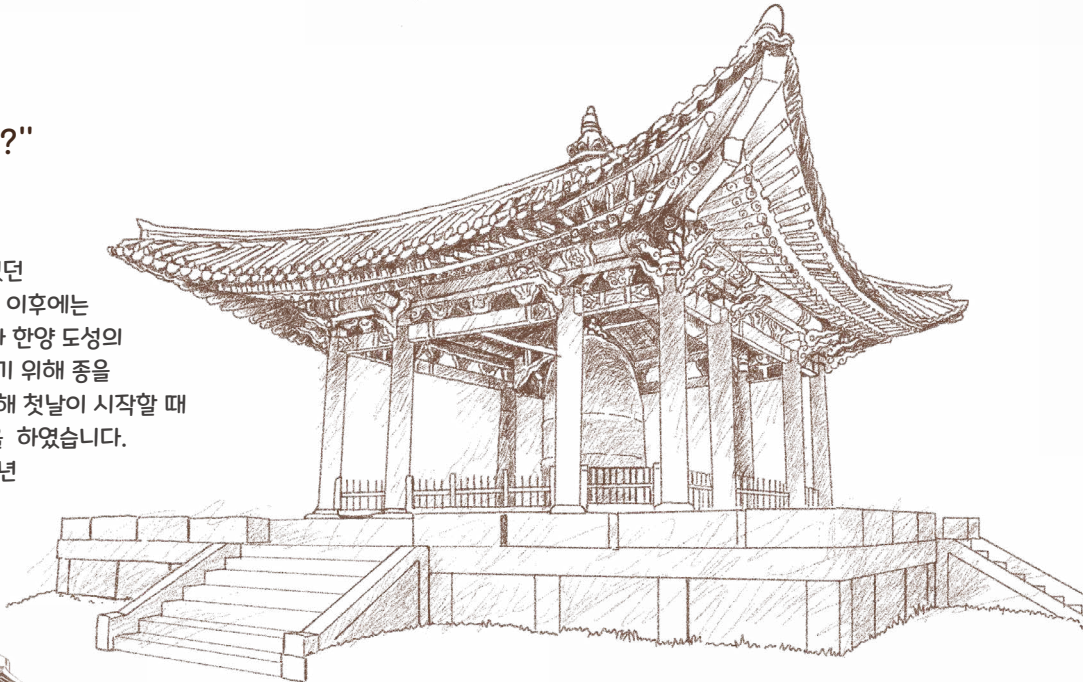
미르는 용의 옛 이름인 것 잘 아시지요? 아주 먼 옛날, 미르폭포에 살던 용왕의 아들은 어느 날, 폭포 아래 앉아 명상에 잠긴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몰래 지켜보던 그 여인에게 다가간 어느 날, 명상에 잠겨있던 여인은 눈을 뜨고 "당신이 바로 나의 반쪽이군요!"라고 외칩니다. 그 이후 여인과 용왕의 아들은 행복한 나날을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도 미르폭포는 용이 사랑의 축복을 내려주는 장소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미르폭포에서 사랑의 축복을 듬뿍 받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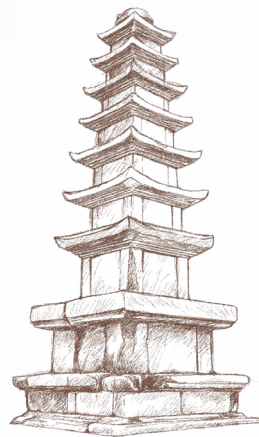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서울 옛 보신각종

1468년(세조 14)에 한양(서울) 원각사(현재 탑골공원)에 봉안되었던 범종입니다. 절이 없어진 임진왜란 이후에는 지금의 서울 종로 보신각으로 옮겨와 한양 도성의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렸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새해 첫날이 시작할 때 33번을 쳐서 새해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종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198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왔으며, 현재 종로 보신각에 걸려 있는 종은 1986년 새로 만든 종입니다.



고전적인 통일신라석탑과 장중한 고려석탑

통일신라 석탑이 완벽한 비례감을 뽐내는 모델같다면 고려 석탑은 개성 넘치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 같아요. 신라 때 만든 김천 갈항사 삼층석탑과 고려 때 만든 국보 제100호 개성 남계원 칠층석탑 사이에서 나만의 취향을 선택해보세요.



"고려왕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청자정"

국립중앙박물관이 2009년에 한국 박물관 10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청자정을 지었습니다.『고려사』기록에 나오는 청자 기와를 지붕에 인 왕궁의 정자를 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청자 지붕 저 너머로 고려 왕궁의 멋진 모습과 풍류와 여유를 찾던 선조들의 풍류를 함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석조물공원 및 야외정원 관람 안내

관람시간

07:00~22:00

관람 에티켓

- » 도시락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주세요.
- » 안내견 이외의 반려동물의 출입은 안 돼요.
- » 야외 관람로에서는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어요.
- » 박물관의 모든 공간에서는 금연이에요.